

단출한 일상 뒤엔 무소유의 넉넉함이 ...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혜정 스님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사리각. 사리각 담벽을 둘러싸고 있는 담쟁이 덩굴이 정겹다.

복잡다단한 세상. 시대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추락하고 만다. 살기위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우리들. 이제 단출함은 조물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힘겨운 날개를 잠시 접고 미륵대불로 유명한 보은 법주사를 찾았다. 회주 혜정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서다. 선·교·을을 겸비한 선지식을 사리각에서 펼 수 있었다.

스님의 처소에 들어서는 순간, 한지가 떠올랐다. 무서우리만치 흰색도 아니면서 적당한 흰빛을 머금은 종이. 만져보면 약간의 거친 듯한 느낌을 주지만 포근한 마음을 가져다주는 한지.

스님의 방에서도 이 느낌이 났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냈던 스님의 방에 있는 것이라곤 가사, 죽비, 탁자, 시계 뿐. 조사이록 등이 담긴 그 흔한 액자 하나 없었다. 잠시 후 들어온 혜정 스님의 모습에서도 그 느낌이 다시 났다. 자그마한 체구에 얽은 미소만 났.

혜정 스님의 일상사는 '단순' 그 자체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능인전에서 1시간 정도 예불을 드리고 30

분 동안 정진을 한 뒤 다시 처소에 들어와 정진을 한다. 아침 6시 공양을 하고 사시마지를 읊린 뒤, 오전 11시 30분 점심공양. 오후 6시 저녁예불 후 뒤 9시 취침.

스님 방엔 가사·죽비·탁자·시계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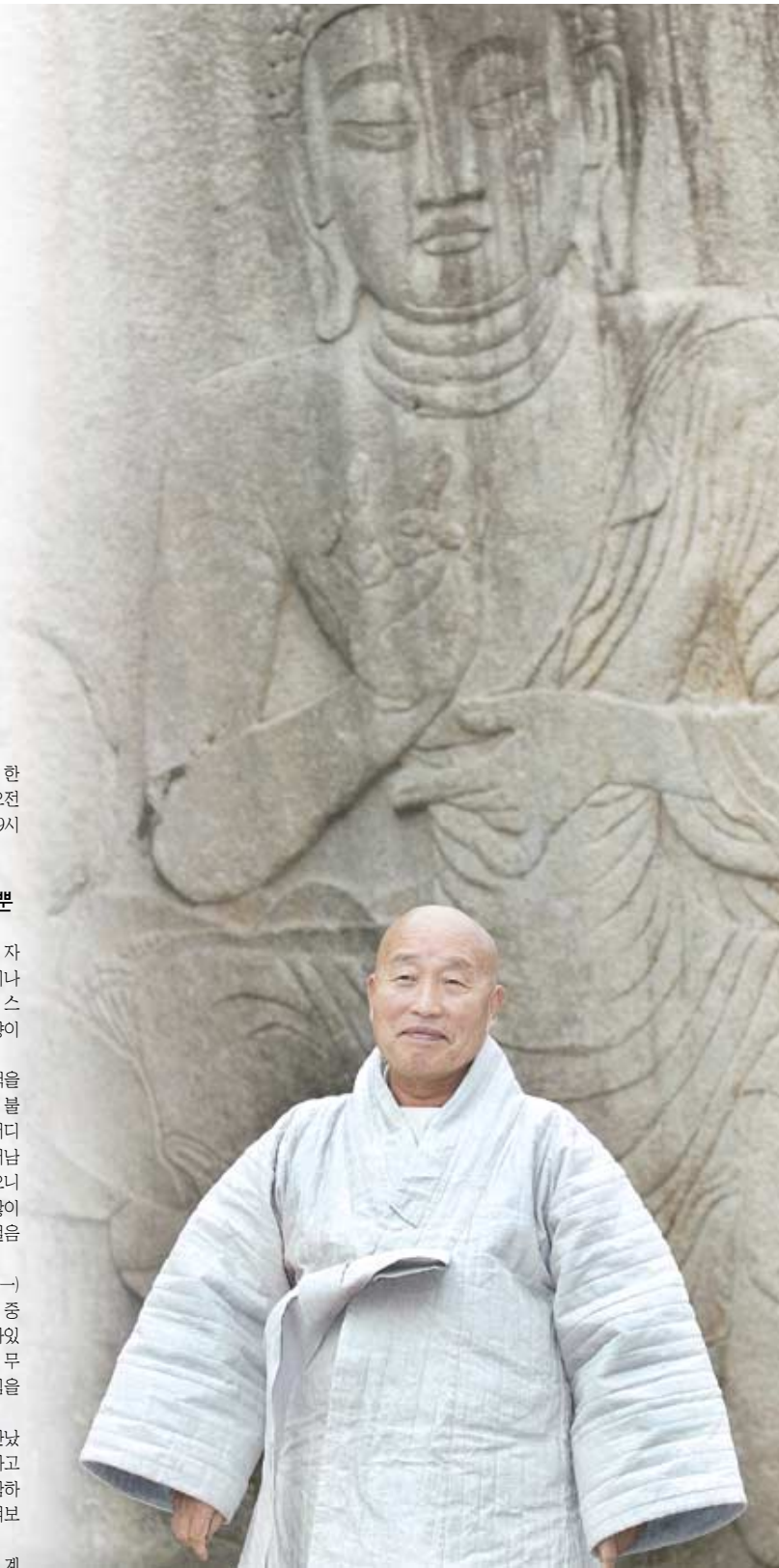
특별한 건강 비결도 없었다. 참선이나 기도 그 자체가 건강 비결이기 때문이다. 다만 "난 참선이나 기도를 잘 못해 건강하지 않다"는 겸손뿐이었다. 스님의 이러한 생활태도는 은사 금오 스님의 영향이 크다.

스님은 서당 훈장이었던 할아버지 영향으로 책을 가까이 하던 중 우연히 불교잡지를 보게 된다. 그 불교잡지에서 "생은 어디를 좇아 왔으며 죽음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생은 곧 한 조각의 끈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은 한 조각의 끈구름이 사라짐과 같으니라"는 대목이 가슴 깊숙한 곳에 꽂혔다. 그 가슴깊이 는 김구 선생이 공부했던 마곡사 대원암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했다.

스님은 행자로 있으면서도 '만법귀일(萬法歸一) 일귀하처(一歸何處)' 화두를 붙잡았다. 그러던 중 어느 깊은 밤 이상한 경계를 만나게 된다. 앉아있다는 의식도 없어지고 공중에 떠 있다는 느낌, 무엇인가 확 터지는 느낌, 그리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후 스님은 수덕사에서 은사 금오 스님을 만났다. 금오 스님은 '참선 이외의 것은 외도(外道)'라고 할 정도로 참선을 강조했다. 행자가 울먹이 동침하지 않더라도 참선에 들고 있으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해 할 정도였다.

금오 스님은 또 무소유를 강조했을 뿐 아니라 계율을 중요시했다. 스님이라면 부처님 법에 맞게 살



마애불 앞에 선 혜정 스님. 마애불의 미소와 혜정 스님의 미소가 닮았다.

아야 한다는 지론 때문이다. 금오스님은 율장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철저히 배격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연스레 혜정 스님 몸으로 전이됐다.

"요즘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은사스님은 어떻게 처리했을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사스님을 잘 모시지 못했다는 마음,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늘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사스님을 떠올리는 혜정 스님의 목소리에 들기가 묻어난다.

혜정 스님은 1970년대 증반 법주사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법주사 강원예 배바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강원예 유명한 교수를 초빙했고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영어, 심리학, 비교종교학 등 내외전을 모두 교과과정에 도입시켰다. 이러한 교과과정과 함께 출판, 포교반, 외국어반, 편집반, 열불반, 미화반 등 6개 자율반을 편성해 활기를 띠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당시 종정이었던 서운 스님의 부름으로 총무원장직을 맡았지만 곧 자리를 내놓고 월출산에 있는 토굴로 내려갔다. 도감사에서 도보로 1시간 거리에 있던 이 토굴은 방 한 칸에 부엌 한 칸만 있을 뿐이었다. 시계도 없어 새 우는 소리로 시간을 짐작할 정도였다.

토굴마당에 풀 우거져야 '진짜'

바람 불면 월출산 전체가 흔들리고 비오면 월출산 전체가 온몸을 흠뻑 적셨지만, 겨울밤 달빛에 비친 순백의 세계는 아직도 스님의 가슴을 뛰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회향도 토굴에서 하고픈 마음이다.

"토굴이나 암자 수행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중 선원에서 기쁨을 다진 수행자는 토굴에서의 집중 수행을 통해 더 한 단계 나아가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요. 하지만 초심자가 토굴에 들어가는 것은 결계해야 합니다. 자칫 나태해지기 쉬우니까요."

스님은 어떤 토굴이 열심히 정진하는 토굴인지 식별할 수 있는 방법도 귀뜸해줬다.

"마당이나 부엌이 깨끗한 토굴이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토굴인 것 같죠. 아님니다. 마당이나 부엌이 깨끗한 토굴은 수행자가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당에 풀이 우거지고 부엌은 더럽더라도 방에 좌복 하나 있는 토굴이 진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스님에게 법문을 청해 듣고 사리각 주변을 둘러봤다. 커다란 바위에 마애불이 새겨져 있었다. 수많은 세월 비와 눈보라가 몰아쳐도 얽은 미소를 띠며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는 마애불. 조금 전 사리각에서 보았던 선지식의 모습과 닮아있었다.

글=남동우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이사 겸비한 수행자의 귀감

혜정 스님은 1933년 전라북도 정읍의 선비 집안에서 태어나 19살 때 예산 수덕사에서 금오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62-83년 1-8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72년 중앙종회 부의장, 77년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법주사 주지와 율주 소임을 거쳐 현재 조계종 법계위원장, 원로의원이다. 이(理)와 사(事)를 겸비한 대표적 스님으로 수행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얗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달마

관음

지장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 소재 : pp클링 달마도 부직카드
- 규격 : 50mm × 75mm
-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 뒷면-소원성취·사고방지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 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삼사순례 및 방생기도도량 감로법비의 성지 동해사

세계최대 약사여래와불 조성불사중

▶ 낙산사 10분 소요 ▶ 대형주차장완비
휴휴암 15분 소요 ▶ 점심공양 무료제공
불탑사 10분 소요 (예약에 한함)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법비오는 곳 동해사
 033)672-2900

불자라면 인간적으로 살아야

혜정 스님의 가르침

불교는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적인 종교입니다. 대신 인간을 중심으로 마음을 닦아 깨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얼마 안돼 신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인도는 발하늘의 별 만큼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또 당시 인도 국민들은 신들을 절대시해, 신과 인간과 관계는 철저한 종속관계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신의 계시에 따라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숙명적으로 정착된 때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신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교에도 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엄경>을 비롯해 여러 경전에도 나오는 신은 일종의 마음의 변형입니다. 즉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지립적이고 존재적인 신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불교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종교라면 인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이중구조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입니다. 육신은 사대(四大地, 水, 火, 風)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환원됩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지만 가짜 나인 가(假我)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나입니까. 가짜 나와 상대되는 것,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마음을 찾아서 깨친다고 했는데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는 마음을 어떻게 접근해 깨칩니까.

그래서 고인(古人)들이 마음으로 마음을 찾으려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비유컨대 물은 모든 것을 씻지만 물 자체는 씻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씻을 수 없는 마음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여기서 다른 학문이나 진리추구와는 다른 방법이 대두됩니다. 말도 문자도 생각도 일체 접근을 불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관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3000년 전 직관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조사들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 것, 중국에 와서 달마대사가 재장조한 것이 바로 간화선입니다.

간화선이라는 것은 화두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두는 뭐냐. 의심덩어리입니다. 이 의심덩어리를 깨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깨치는 근본자리입니다.

화두는 양미간에 든다고 했습니다. 어느 노스님은 화두를 들면 산을 보되 산이 아니고 물을 보되 물이 아니고, 행하되 행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몸과 마음을 통해 오직 의심덩어리 하나만 끝까지 쉬지 말고 정진해야만 깨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두도 깨치기 전까지 공부하는 방법론이지 공극에 가면 망상의 하나일 뿐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무심한 경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무심한 경지란 허공 같아서 막힐도 없고 거러질 것도 없고, 목석과 같아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림도 없는 것입니다.

버리는 경계를 무심이라고 했습니다. 무심한 경계에 도달하면 그것이 깨치는 것이고 우리의 구경처입니다. 아닙니다. 물이 흘러가다 멈추면 썩게 됩니다. 우리가 무심한 경지에 안주해 이것이다 하고 주저앉게 되면, 비유컨대 깊은 귀신 굴에 떨어져서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신명을 바쳐 진일보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목숨을 바쳐 한걸음 더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요 깨치는 구경처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 어느 의도가 와서 "아주 훌륭한 성자라고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괴로우니 한 말씀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끝까지 말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그 의도가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말하고 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했지만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설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의 인연이나 근기가 마주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화두를 들고 끝까지 정진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화두를 깨치면 부



혜정 스님은 "불교는 인간 중심의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신심을 견지하고 꾸준히 정진하면 구경에 도달한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먼 길이요, 고달픈 길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막막한 사막을 걸어야만 합니다. 걸어가다 보면 화오리바람을 만나 세상을 떠날 수 있고, 폭풍이나 맹수를 만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으며, 적열한 태양이 일사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문의 본분은 수행입니다. 수행을 위해 집과 가족, 모든 것을 버리고 험혈대신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바쳐 한 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란 무엇이나, 부처는 최고의 인격정지를 수행을 통해 체득한 사람, 생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지를 체득한 사람, 모든 고통을 여의고 고통 없는 세계를 체득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마음을 깨쳐서 된 정신적인 대 혁명가입니다. 즉 부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지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나무는 아래서 위로 자랐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렀습니다. 지금도 나무는 위로 자라고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인간이 부처가 됐다는 것, 마음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 깨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삼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합니다.

요즘 유패사나를 한다 요가를 한다 그러니까, 안되니까, 답답하니까, 세월은 자꾸 가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으니까 방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신심을 굳건히 해서 권력을 세운 다음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불교는 신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불교를 믿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54>



미녀들이 기다리는 천국

덴마크의 한 일간지가 지난 해 9월30일부터 '무하마드'라는 제목으로 12컷의 풍자만화(카툰)를 온라인서비스로 게재하였습니다. 만화가들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느낀 무하마드(마호메드)를 한 컷의 만화로 그려낸 것입니다. 이 카툰 중에는 구름 위에 서 있는 무하마드가 자살폭탄 테러로 숨져 하늘로 온 지하드 용사들에게 두 팔을 저으며 "그만, 그만, 이제 처녀가 다 떨어졌단 말이야"라고 말하는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주간조선 1892호).

당연히 무슬림들의 반발을 샀고 '표현의 자유'를 이해 못하는 '무지하고 완고한 무슬림'들에게 유럽의 언론들은 연쇄적이고 지속적인 풍자만화를 실음으로써 그들의 자존심을 더욱 상치 내었습니다. 이슬람국가들에서는 해당 유럽국가의 공관에 물리적인 공격과 시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고 국가를 불태우는 등의 심한 저항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천국의 미녀를 탐내어서 종교 행위에 열심인 광신도를 풍자한 내용을 보면서 부처님의 이복 동생인 난타가 생각났습니다. 고향을 방문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려다 부처님이 발우를 받

에 정진하면 이 천국의 여인들이 모두 네 품에 안길 텐데 그래도 수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느냐?"

난타는 도리질하였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런 달콤한 과보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후 난타는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참선도 하고 선업도 지었습니다. 밤낮없이 율법정진하는 난타를 보고 도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난타를 좀 봐, 저 자는 하늘의 미인들을 차지하려고 수행하고 있어. 그는 절대로 참다운 수행자가 될 수 없어."

은화한 성품의 아난조차도 이런 난타의 모습에 매우 신랄하게 비난하였습니다.

"난타의 행동은 마치 수양이 싸우려고 앞으로 나섰다가 몇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잡보장경 8권)

도반들의 수군거림과 존경하는 이들의 차디찬 응대는 난타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요히 나무 아래에 앉아 진정한 수행에 들어섰습니다. 고향의 아내를 그리워하던 자신의 마음도 냉정하게 돌이켜 보았

존경하는 이들의 비웃음에 성자가 된 난타와

무슬림들의 폭력 부른 풍자만화의 차이점은?

아들지 않자 엉겁결에 절까지 따라왔고 그 날 강제로 출가를 당했던' 난타 말입니다.

부처님 눈치가 보여 수행의 흉내는 내고 있지만 그의 귓가에는 '내 화장이 마르기 전까지는 돌아오라'는 아내의 음성이 쟁쟁하였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아내의 모습이 어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도망치려고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반번이 붙잡혀왔습니다.

그런 난타의 마음을 진작 알고 있던 부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라는 곳은 선업을 지은 이들이 그 과보로 올라가 자기 마음을 깨쳐서 된 정신적인 대 혁명가입니다. 즉 부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지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미녀들이라... 그 아름다운 극치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빼어난 하늘 여인들의 자태에 빛이 나간 난타에게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지금 네 고향집에서 널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이 여인들을 비교해보렴. 네가 조금만 수행

습니다. 나는 진정 그녀의 무엇을 그리도 그리워하였는가.'

그는 마음속에서 탐욕을 털어냈습니다. 분노를 털어내고 마침내 어려서움의 덩어리까지 깨끗하게 털어버렸습니다. 그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의 교리에 의거해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행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압니다. 그 천국의 행복이란 결코 미녀들에게 둘러싸여 누리는 한없는 육체적 쾌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구 일간지들은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무슬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풍자만화를 실어 일부 과격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행위를 비롯했습니다. 자살폭탄테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를 비난하려면 왜 그런 테러행위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같은 비웃음이 어떤 경우는 그를 성자로 완성시켰고 다른 경우는 더욱 거센 반발과 물리적인 폭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체 어떤 차이가 바람에 숨어 있을까요?

■ 이미형(중국역경원 역경위원)

밀납양초 (Bee's Candle)

2006년 新製品

삼포귀의 하늬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 전문 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개발중 이변에 밀납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있는 양초의 행사용, 기도용 주문계조 코멘트)

양초가 연소되면서 나는 향만이 천연 향 입니다. 국내외에서는 밀납양초 약속향양초 등이 있습니다.

천연약속향 양초의 특징

- ① 일반양초보다 연소시간이 40%이상 길어진다.
- ② 실내에 배어있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 ③ 천연약속향이 양초가 연소되면서 은은히 실내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머리를 맑게하여 진취적 사고를 솟아나게 합니다.

천연약속향 양초 (발명특허 122357호)

국내 산천에 자생하는 약속에서 추출한 향이 첨가된 발명품

- 밀납초 전사지 반이심경 1호 5.9cm × 18cm 연소시간 약 72시간 이상
- 밀납초 전사지 반이심경 3호 4.7cm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밀납초 전사지 반이심경 4호 4.7cm × 9.5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금강경 7개 세트 5.9cm × 19.5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약속향양초 1호(돈대대) 5.6cm × 27cm 연소시간 약 100시간 이상
- 약속향양초 2호(일대) 4.6cm × 25cm 연소시간 약 40시간 이상
- 금강반이반이밀경전 5.9cm × 19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캡으로 구소 보내주시면 전본이나 랩랩렛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늘음 걱정은 이제 그만!!

양초가 연소되면서 발생되는 그늘음 내용새를 한번에 해결한 - 밀납양초 약속향양초



밀납초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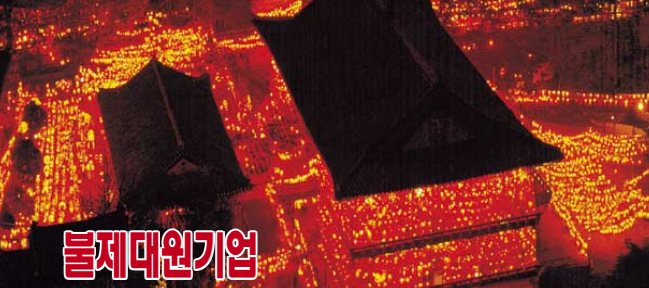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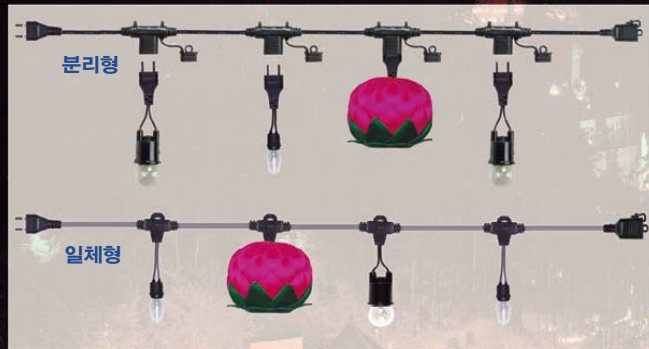
- ① 그늘음이 없습니다.
- ② 연소 시간이 일반양초보다 2배이상 길어집니다.
- ③ 연소되면서 벌꿀향이 은은히 실내를 가득채워 실내공기를 정화 시킵니다.
- ④ 지금까지 양초에서 발생되는 내용새 그늘음을 한꺼번에 해결하였습니다.
- ⑤ 도음발집에서 추출한 밀납이니 순수한 우리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생각하시어 양초도 선별하여 사용하고 기도하실때는 반드시 밀납양초를 이용합니다.

- 1호 5.9cm × 18cm 연소시간 약 72시간 이상
- 2호 5.9cm × 13cm 연소시간 약 50시간 이상
- 3호 4.7cm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4호 4.7cm × 9.5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밀납초 받침대 1호 - 4호까지 사용 - pc컵초 7시간 이상 - 선물용 세트 (1 - 4호 밀납초 받침대)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사찰 연등 및 전선 (별당용)

불제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 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사찰 전구 (정품)

-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일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필라멘트가 6배 (특 필라멘트)로 빛이 훨씬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 (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건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종 및 초종 같이대

연 등 (정품)

법당용(금단형), 영가동, 오색동, 황금동, 주불동, 특수등

근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